



급등하는 비료 가격, 브라질 농가의 미국 대비 경쟁우위 약화

(ANALYSIS-Soaring fertilizer prices dim Brazilian farmers' edge over US rivals)

브라질은 저렴하고 풍부한 농지를 기반으로 대규모 저비용 농업을 발전시켜 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중 무역갈등으로 중국이 공급선을 다변화하면서 브라질은 미국이 점유하던 일부 수출시장을 흡수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세기 들어 미국의 농경지 면적이 정체된 반면, 브라질의 농경지 면적은 약 50% 확대되면서 세계적인 농업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비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브라질 농업의 경쟁우위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고 분석가들은 평가했다.

인도네시아, 엘니뇨 위험에 대비해 벼 조기 파종 추진

(Indonesia races to plant rice early against risk of El Nino)

인도네시아 서자바 지역의 벼 재배 농가는 올해 예상되는 장기간의 건조한 날씨와 강한 엘니뇨 발생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평소보다 서둘러 벼 파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형성되고 있는 엘니뇨는 평년보다 강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수백만 명의 주식인 쌀 생산을 안정적인 기상 조건에 의존하는 인도네시아 전역에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중국 5월 대두 수입,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예상치 상회

(China's May soybean imports exceed expectations on strong Brazil supply, faster clearance)

중국의 5월 대두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3% 감소했으나, 남미산 대두 공급 증가와 항만 통관 절차 개선에 힘입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역대 5월 기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5월 대두 수입량은 1,179만 톤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의 1,392만 톤보다 감소한 수치이다.

한국 제분업체, 미국·캐나다산 밀 3만 톤 구매

(South Korean mills bought wheat from US and Canada last week, traders say)

유럽의 거래업자들은 월요일, 한국의 제분업체들이 지난주 후반 국제 시장에서 미국산 제분용 밀 약 1만 9,500톤과 캐나다산 밀 약 1만 500톤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매는 다양한 품종의 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계약은 FOB 기준으로 체결되었다. 미국산 밀은 9월 15일부터 9월 30일 사이 미국 태평양 북서부 항구에서 선적될 예정이다.

출처: Thomson Reuters